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생각과 산란심이 없는 마음은

미인의 거울과 같으니

마음은 이론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것이다.

한 번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의식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수식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은 '명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요한 통합 상태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본존들을 관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일상의 잡념이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애쓰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본성 그 자체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각은 기분이 좋다가나 불쾌하다거나 하는 자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저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거울에 아름다운 얼굴이 비칠 때 거울이 황홀함을 느끼거나 못생긴 얼굴에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이 모든 사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비추듯 깨달은 자 역시 궁극적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명료하게 인지합니다.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는 거울의 일부도 아니고, 거울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물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존재, 비존재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나의 견해를 반박하지 못할 것이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법계, 전문 직무 활용하도록 바꿔야”

조계종 교육위, 18일 ‘법계별 교육’ 정책 세미나

“법계별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경력을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온전히 갖출 때까지 법계 수업을 유보해야 한다.”

조계종의 현행 법계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가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계종 법계 제도 스님들의 전문 직무 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중화)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법계별 교육과 종단적 역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법계별 교육과 고시, 종단적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교육원이 2010년부터 시행한 승려연수교육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 하지만 승납별로 구분하지 않고 진행돼 승납·법계별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계별로 소임과 위계를 정하고 있는 우리 종단에서는 법계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경 스님은 “법계별 교육이 일상적 강좌에서 벗어나 현장체험과 토론 등 주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법계별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놨다.

막 법계를 받는 승납 5년차의 견덕과 견덕의 경우 사찰 대중소임을 살며 사찰 운영방법과 전법 포교 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덕·정덕은 후학 지도와 신도 교육, 사찰 운영의 마인드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주경 스님의 제안이다.

법계에 맞는 전문 교육 필요

통합인사시스템 통해 종단 활용

“현행 법계 상황 조정” 주장

특별고시제 도입 의견도

또한 본사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담당할 수 있는 대덕·해덕은 신도 임원교육과 교구 및 종단,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지도력을 갖추는 교육이, 승납 25년차 이상의 종덕·현덕은 한국사회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납 30년 이상의 종사·명덕 법계는 사회와 종단의 지도자인 만큼 현대 인류의 과



조계종 교육위원회는 7월 18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법계별 교육과 고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를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경 스님은 “법계를 품수한 당해 년도에 2박 3일에서 10여 일간의 집중 심화교육이 진행돼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주요 직무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법계별 승가고시에 대해서는 “각 법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고시 사정 기준도 수행과 소임 경력, 면접 등 수행과 전법교화에 필요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종단 법계제도의 의미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일률적인 법계가 ‘법계 경시’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계를 상황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안 스님은 “현행 법계의 상황 조정하고 특별 고시제를 시행해 직무의 전문성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패, 단청, 불화 등 기능적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각 직무분야의 법계를 부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밀운 스님 비구계 수지 문제 전혀 없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 기자회견, 계첩·사진 전부 공개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는 설조 스님의 폭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밀운 스님은 7월 17일 봉선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조 스님의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비구계첩, 계첩과 사진들을 전부 공개했다.

밀운 스님은 “월운 스님이 당시 봉선사 교무국장 소임을 보고 있었고, 나를 운허 스님 밑으로 건당시키기 위해 비구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며 “그래서 1971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동안 비구계와 보살계단이 이뤄졌고 나를 비롯한 7,8명의 스님이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렇게 비구계를 받고 운허 스님 앞으로 건당하게 됐고 이후 봉선사 문중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10년간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행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하사관은 영의 거주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절에서 하숙하면서 군 생활을 했다”며 “술, 담배는 일절 손에도 대지 않았고, 참선 수행을



밀운 스님이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스님의 계첩.

더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밀운 스님은 스스로 모든 자료를 공개한 만큼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님은 “설조 스님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문중과 상좌들이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절 내가 막았다”며 “수행자는 계를 받을 때 남의 허물을 보지 말 것을 약속받는다. 설조 스님에 대한 고소 등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봉선사·신종일 기자

2013 회당문화축제 7월 30~31일 개최

콘서트, 독도관련 체험행사 등 올름도서

‘금강독도,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한 2013 회당문화축제가 7월 30, 31일 양일간 울릉도에서 열린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음악콘서트, 독도관련체험 등이 진행된다. 공연행사는 7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울릉한 마음회관에서 열린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로 문을 연다. 이 공연에 이어 7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는 도동항 특설무대에

서 가수 이보경씨를 비롯해 특별초청밴드 크라이닝과 동물원, 걸그룹 비피팝 등이 출연한 ‘독도아리랑 콘서트’도 마련된다. 또한 샌드아트매이션 유혜진 작가의 독도 사랑포포먼스, 울릉경비대의 특공무술시범, 화합과 번영의 풍등날리기도 등도 펼쳐진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군부대 위문품증서 전달 및 독도 관련 영상물상영도 마련되며 ‘금강독도, 독도아리랑’ 메시지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법인법 반대’ 의지 재확인”

선학원, 지역별 중진분원장 회의

(재)선학원이 지역별 중진분원장 회의를 마쳤다. 지역별 분원장 회의는 7월 12일 서울·경기·강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15일), 부산경남지역(18일)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분원장 회의에서는 법인 이사회가 ‘법인법’을 거부하고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참석 분원장 스님들은 스법인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단 이사회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문에 서명인했다. 신종일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2013년도 종도 연수교육 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중헌종법에 의거 아래의 내용으로 2013년도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원효종 전 종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 2013년 8월 11일 ~ 16일 (5박6일간)
교육장소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734-2번지 천전사
준비물 : 세면도구, 법의, 개인발우
문의 및 접수 : 각 교구종무원 및 총무원

대한불교원효종 법계고시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 내에 이행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 2013년 8월 16일
장 소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734-2번지 천전사 금강계단
문의 및 접수 : 각 교구종무원 및 총무원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